



치료레크리에이션, 무한한 가능성의 분야

취재 : 박숙미 (socialworker@welfare.net)
사진제공 : 너싱홈그린힐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개발되어야 할 것도 무궁무진하고 네트워크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신경미 사회복지사는 너싱홈그린힐이라는 유료양로시설에서 3년차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 교수님의 소개로 처음 유료양로시설에 입사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유료양로시설에서만 벌써 5년차가 되었다.

신경미 사회복지사가 처음 치료레크리에이션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기술로, 교수님의 추천으로 었다.

누구나 처음이 어렵듯 신경미 사회복지사도 처음 치료레크리에이션을 공부 하면서는 의도하였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당황하고 힘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어르신들이 먼저와서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묻고 간다고.

치료레크리에이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인테이크

“일반레크리에이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정단계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인테이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라고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알려주는 신경미 사회복지사.

신경미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너싱홈그린힐의 경우 유료양로시설로 처음 대상자가 입소하면 담당 팀장이 인테이크와 도구를 활용한 평가를 하고 이를 신경미 사회복지사가 공유하면서 적절한 시간에 적

“ 치료레크리에이션과 일반레크리에이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정단계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인테이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

정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무조건 처음부터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기존 그룹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경미 사회복지사가 너싱홈그린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하는 업무는 치료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기공제조, 미술포럼, 음악 요법, 원예요법 등이다.

오전 9시에 출근해 기공체조를 시작으로 신경미씨의 하루 일과는 시작된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차례 각 1시간씩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 그림카드를 이용한 상황기억하기, 응용 축구와 응용 볼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은 아이디어와 도구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첫째로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나 활동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도구를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한시간의 치료레크리에이션이 끝난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종료 되는 것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어 치료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배운 운동을 오전 체조 시간을 통해 계속 활용함으로 계속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팀대항으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게임 중 소소한 싸움이나기도 하는데 이를 중재하는 것도 신경미 사회복지사의 몫이다. 프로그램의 적정 수위를 조절하기도 하는데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지 않게, 나름의 도전의식과 즐거움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 이진 팀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르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또 프로그램 마다 개별 평가를 하는데 전체 평군을 통해 다음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평가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부족한 부분과 잔존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보충·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개별프로그램도 치료레크리에이션의 한 분야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면 그룹 활동을 쉽게 떠올리는데 개별프로그램도 치료레크리에이션의 한 분야이다. 그룹 활동을 하기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이나 다른 어르신들과의 관계형성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직접 방으로 찾아가 개별프로그램을 하게 된다.

신문이나 책을 읽어드리기도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외의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도구를 제작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관련 책도 많이 보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건강상식 등에 대해 공부하기도 한다.



▲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는 시간에는 아이디어 개발과 도구 제작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신경미 사회복지사 사진은 너싱홈그린힐 내부에 마련된 사회복지사실

적극 협력하지만 고유영역에 대한 존중이루어져

간호사, 간병인 등 직원인 30여명이 되는 속에서 사회복지사는 신경미씨 혼자이다. 때문에 그속에서 느끼는 소외감(?)에 대해서 신경미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룹활동을 할때 간호사와 간병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예전 직장에서 근무할때도 지금과 비슷한 인력 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직종의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와 업무에 대한 존중이 적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사람관계 때문에 마음을 쓰지는 않습니다. 필요시에 서로 협력하지만 절대 고유영역에 대해서는 침범하지 않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장의 마인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간호사

이시지만 사회복지사 고유업무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직원들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저 처럼 다른 직종의 사람들과의 마찰로 마음 고생하는 동료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경우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도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분야이든 다른 직종의 사람들과 함께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개인에게 주어지는 큰 숙제일 것입니다. 개인의 역량과 자질로만 맡기기에는 무리인 부분이 분명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볼 때면 안타깝습니다”

아직 사회복지사들이 치료레크리에이션을 실무에 적용하는 예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처럼 아직 그 분야가 고유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치료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관심도 적은 것이 이유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개발할 것도 무궁무진한 분야이며 사소한 예이지만 도구 활용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를 공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같은 도구를 제작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수고는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많은 후배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공부하여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이란 한 개인의 부족한 신체·사회·정신·정서적으로 부족한 기능을 바람직하게 변화시켜 적합한 여가생활양식을 개발, 유지, 표현을 촉진시키는 전문분야로 사정, 계획, 실행, 평가의 4가지 구성요소를 갖는다.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는 치료레크리에이션 과정에 들어서면서부터 클라이언트의 건강상태, 욕구, 장점을 명백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 단계가 사정(Assessment)이다. 그 다음 계획의 단계에서는 파악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계획(Planning)한다. 다음의 실행(Implementation)단계에서는 계획된 것을 전문가가 개입하여 실행한다. 마지막 평가(Evaluation)단계에서는 결과를 계획에 비추어 평가한다.

출처 :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 홈페이지(<http://www.ktra.com>)